



구술사연구 제15권 1호

ISSN : 2233-8349(Print) 2713-9328(Online)

구술사와 이주민의 도시 유산

박준규

To cite this article : 박준규 (2024) 구술사와 이주민의 도시 유산, 구술사연구, 15:1, 13-45

① earticle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학술교육원은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earticle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www.earticle.net

구술사와 이주민의 도시 유산*

박준규**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어떤 계기로 구술사와 이주민의 도시 유산을 연구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연구방법들의 어셈블리지(assembly)” 개념으로 설명하고 이주민의 도시 유산에 대한 소위 개념증명(proof of concept)을 제시 하고자 한다. 인류학에서 어셈블리지(assembly)는 세계화로 인한 다양하지만 연결되어 있는 현상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한 사회 내의 관습, 신념, 유물 등의 문화적 요소의 역동적인 조합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이다. 어셈블리지는 문화 구성의 유동적이고 우발적인 특성을 강조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연구자의 연구방법론 또한 특정 학문에 국한 된 것이 아니고 고정적인 것도 아니다. 특히 복잡하고 급변하는 사회적 문화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자기성찰을 통해 다양한 학문의 연구방법론을 조합하여 연구방법의 어셈블리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역사와 구술사 그리고 이주 연구의 만남을 가져온 구술 생애사 연구, 국민-국가 중심의 한계를 넘기 위한 대안으로서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과 도시 시민권, 비판적 유산 연구와 도시 유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산 고향마을을 사례로 한 구술사를 통한 이주민의 도시 유산 개념증명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양한 아래로부터의 기억과 경험을 공공기억화 할 수 있다는 점과 상호문화주의 장소성을 중심으로 이주민의 도시 유산 개념증명을 논하고자 한다.

주제어: 공공역사 전환, 구술사, 기억의 호황, 비판적 유산 연구, 상호문화도시, 안산시 고향마을, 이주민의 도시 유산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A2A03050638).

** 한양대학교 ERICA 문화인류학과 부교수, cpark613@hanyang.ac.kr

1. 들어가는 말

2022년 역사학, 인류학, 교육학, 문헌정보학 등 다양한 학문 배경을 가진 7명의 연구자들이 새로운 구술사 연구를 시작하였다. 역사소비시대 공공역사와 구술사의 협업을 통해서 역사학이 지향해야 하는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고, 구술사를 통해 다양한 공공역사의 장을 검토 분석하여 한국 공공역사의 성장과 구술사의 공공성을 확대라는 목적을 가진 한국연구재단의 일반공동연구이다. 연구의 제목은 “구술사에서 공공역사 전환: 이론적 쟁점 검토와 실천적 대안 모색”이며 연구팀은 4개의 연구 영역을 설정하였다(이번호 특집 서문 참조). 필자의 연구는 두 번째 영역인 “공공기억과 지역문화유산”에 속하는 연구로서 자전적 기억이 공공기억화하여 지역문화유산이 되는 과정을 이론적 접근을 통해 검토하고 국내외 사례들을 조사 분석하여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미 역사소비 시대의 공공역사와 구술사의 관계의 핵심 중 하나인 구술자료 활용과 법적/윤리적 쟁점에 대해서 북미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한 바 있기에 이번 일반공동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연구주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박준규 2022). 구술사는 자전적 기억에 기초한 개인적 서술을 수집하고, 구술자료를 사료화하며 ‘아래로부터의 역사쓰기’를 추구해왔다. 한국에서 구술사는 공식적인 역사에서 배제되고 억압되었던 개인들의 기억인 대항 기억을 역사로 만들고자 했다(윤택림 2020: 33). 구체적으로 제주 4.3 사건이나 5.18 민주항쟁 같은 경험과 관련된 대항 기억들은 기억투쟁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진상규명 운동에 의해 역사 속에 편입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윤택림(2020)은 한국 구술사는 공공역사로서 출발했다고 강조한다.

다른 한편 역사의 대중화가 역사소비 시대를 가져왔고 이는 역사를 영화, 텔레비전, 박물관, 유적지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재현하며 상품화하

여 소비하는 경향으로 이어졌다. 필자가 관심을 가진 부분은 1980년대 이후 미국과 영국에서 도시재생사업과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구도심의 건물이나 폐광과 같은 쇠퇴하거나 사라진 산업을 보존하고 관광지 또는 지역문화유산으로 탈바꿈하려는 시도가 급증하면서 유산 집착(heritage obsession) 또는 기억의 호황 시대를 맞이 했다는 점이다(이현경 2019; Coupland 2012). 한국의 경우 2010년부터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근현대 건물과 주택 등이 역사 관광 상품이 되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인 군산의 동국사 그리고 서울미래유산 사업이다. 서울미래유산 사업은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위주의 도시재생사업이 공동체 장소를 상실하고 자본과 권력을 위한 경관 위주로 진행되어 도시의 기억을 보존하지 못하는 한계를 인식하여 ‘도시 기억’을 되살리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서울시 미래유산 홈페이지; 조은영 2016: 33에서 재인용).

인류학을 전공하는 필자에게 구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기억, 구술성, 내러티브로의 전환이다. 1970년대 말부터 구술 증언의 신뢰성을 입증하려고 하기보다는 알레산드로 포르텔리(Portelli 1979/2009) 및 루이사 파세리니(Paserini 1979) 같은 구술사 연구자들은 구술 증언을 독특하고 특별하게 만드는 구술 증언의 주관성 자체를 중요시하였다.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와 그들이 말하는 방법을 조사하고 구술 증언 속의 부재, 거짓, 침묵이 현재와 과거에 대한 개인적 집단적 기억의 구성과 표현에 대해 무엇을 말해 줄 수 있는지(과거가 아닌 기억되는 과거)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야기 속에는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구성하였던 세계가 드러나기도 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정신의 틀에 맞추어서 이야기가 전개되기도 하기 때문이다(함한희 2000). 다시 말해 구술사가 역사학의 영역에서 문화연구와 기억연구의 영역으로 확장된 것이다. 알리스터 톰슨(Thompson 2007)은 이 같은 기억과 주관성의 전환을 구술사의 두 번째 패러다임적 전환이라

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구술사를 통하여 자전적 기억이 공공기억화하여 지역문화유산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구술사에서 공공역사 전환”을 검토하는 연구 과제의 주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지역문화유산을 도시 기억과 관련된 도시 유산으로 구체화하였고 연구자의 선행연구와 경험에 기반하여 이주민의 도시 유산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필자는 공공역사의 공공성과 대중은 누구인지에 대한 공공역사 내의 논의(박준규 2022)에서 대중은 다수 또는 특권을 가진 계층이 아니라 서민 또는 주변화되고 배제된 계층으로 봐야 한다는 점과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다문화 현상에 대한 고민 속에서 이주민의 도시 유산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어떤 계기로 구술사와 이주민의 도시 유산을 연구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연구방법들의 어셈블리지(assembly)” 개념으로 설명하고 이주민의 도시 유산에 대한 소위 개념증명(proof of concept)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류학에서 어셈블리지(assembly)는 세계화로 인한 다양하지만 연결되어 있는 현상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한 사회 내의 관습, 신념, 유물 등의 문화적 요소의 역동적인 조합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이다(Collier & Ong 2005). 어셈블리지는 문화 구성의 유동적이고 우발적인 특성을 강조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지만 다양한 문화적 조합의 어셈블리지는 국민-국가나 권력에 의해 상상된 내부적 논리를 가지게 되고 이질적인 것들이 위계화 되어 하나의 체제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것처럼, 즉 자역적이기 때문에 고유하고 동질적인 무엇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어셈블리지 개념은 문화의 자연화를 비판하고 개인이 자신의 삶과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적 삶 속에서 지속해서 자기 성찰하며 개인과 집단적 삶의 영역을 구성하고 재구성한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한다. 콜리어와 옹은 이 같은 자기성찰적 과정에는 수단과 결과를 연결하

는 기술적, 현대 신자유주의 사회를 비판하는 정치적, 가치와 도덕성을 질문하는 윤리적 유형이 있다고 말한다.

연구자의 연구방법론 또한 특정 학문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고정적인 것도 아니다. 특히 복잡하고 급변하는 사회적 문화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자기성찰을 통해 다양한 학문의 연구방법론을 조합하여 연구방법의 어셈블리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 필자는 기술적 자기성찰에 의해 구술사를 주요 연구방법론으로 선택하였고 정치적 자기성찰에 의해 포스트 국민주의 연구방법론을 선택하였고 마지막으로 윤리적 자기성찰에 의해 상호문화도시 연구방법론을 선택하여 이를 어셈블리지로 조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공역사와 구술사 그리고 이주 연구의 만남을 가져온 한민족다문화 협력적 구술 생애사 연구, 국민-국가 중심의 한계를 넘기 위한 대안으로서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과 도시 시민권, 비판적 유산 연구와 도시 유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산 고향마을을 사례로 한 구술사를 통한 이주민의 도시 유산 개념증명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양한 아래로부터의 기억과 경험을 공공기억화 할 수 있다는 점과 상호문화주의 장소성을 중심으로 이주민의 도시 유산 개념증명을 논하고자 한다.

서구에서 본래 가문의 뿌리를 확인시켜주고 연대감을 강화하는 상징물, 즉 사적 자산으로 인식되었던 문화유산 또는 유산(heritage)은 19세기 말부터 국가의 공공 자산으로 편입되었고 세계 2차대전 이후, 국제기구인 유네스코(UNESCO)의 탄생으로 세계의 영역으로 확장되어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하는 ‘인류의 자산’으로 인식되었다(이현경 2019). 한국의 경우 유산은 문화재 보호 제도의 성립과 함께 하며 유네스코의 두 협약인 세계유산협약(1972)과 무형문화유산협약(2003)에 따라 국내 유산들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정책적/사회적 관심이 급부상하였다(정수진 2023). 이는 곧 ‘문화유산 시대’의 도래를 가져왔으며 문화유산 등재를 둘러싼 국가 간

의 문화전선이 구축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졌다.

지면의 한계 때문에 본 논문에서 유산이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물음과 같은 유산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 다루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은 유산을 과거의 박제된 문화적 산물이라는 수동적이고 정적인 개념을 넘어 오늘날 급속히 변하는 사회의 요구에 의해서 그 의미가 새롭게 부여되고 만들어지는 ‘사회적/인류학적 과정’으로서 이해하는 서구의 문화유산학적 담론(이현경 2019)을 토대로 출발하지만 최근 문화유산학의 서구 국민-국가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과 탈식민주의를 접목한 비판적 문화유산학(critical cultural heritage studies) 관점도 포함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 공공역사와 구술사 그리고 이주 연구의 만남

필자는 2012년부터 경기도 안산에서 지역사회 기반 연구를 지향하며 다문화 현상과 세계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다문화연구원의 일원으로 소속되어 이주민을 위한 공공/실천 인류학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첫 번째로 필자가 참여한 공공/실천 인류학 연구 과제가 2012년 가을부터 2014년 여름까지 진행된 “한민족다문화 삶의 역사 이야기 치유의 공동체” 프로젝트이다. ‘한민족다문화’ 프로젝트는 한인의 민족성(ethnicity)을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삶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서로가 공동으로 삶의 역사 이야기를 나누는 협력적 구술생애사 프로그램으로서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구술자의 생애사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술자들을 통과의례 참가자들이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형성하는 ‘커뮤니타스’ 즉 의례적 공동체처럼 삶의 역사 이야기를 공유하고 누구도 소수집단이 아니며 어느 특정한 이념, 국적, 국민국가의 역사,

지역, 문화만으로 정의될 수 없는 개개인 삶의 주체적 행위자로 변화시키고자 했다. 이렇게 협력적 구술 생애사 프로그램에 참여한 구술자들은 그들의 삶에 대한 기록뿐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를 들어 전쟁을 피해 남으로 내려온 실향민 할머니와 국군에 의해 온 가족이 몰살당했던 할아버지의 만남은 이념을 넘어 ‘한민족’으로서 겪어야 했던 아픔을 헤아리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대한민국 국군 재향군인과 군사분계선을 경비했던 인민군 출신이 한자리에서 자기 경험을 나누고 서로의 다른 입장을 이해하는 화해의 자리였다. 이처럼 협력적 구술생애사는 적어도 함께 모인 구술자들에게는 단순한 과거의 역사를 공유하는 자리로부터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미래를 향한 화해의 순간으로 변화한 것이다. 더 나아가 연구진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구술자의 인물 사진과 수집한 삶의 역사이야기를 활용하여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서울 소재 KF갤러리에서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공공역사의 실천으로 나아가고자 했다. 사진 전시회는 구술자 개개인들의 삶 이야기가 대학교에서 그리고 서울 도심의 유명한 국제기구의 전시실에서 전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구술자들이 존중과 자부심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다른 한편 전시회 방문객들은 이주와 다양한 국적, 언어, 문화를 경험한 다양한 한인들의 이야기를 접할 기회가 되었다.

한민족다문화 협력적 구술 생애사 연구는 구술사가 이주 연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구술사, 특히 구술 생애사에서 따로 구분된 하위분야는 없지만 상당 부분 이민자와 이주민의 생애사를 다뤘다(박정하 2022; 유철인 2021; Darian-Smith and Hamilton 2019). 다리안-스미스와 해밀톤(2019)은 호주의 경우 1950년대 초부터 실향민과 이주민에 대한 구술 생애사 연구가 시작되었고 이들의 구술 생애사는 이주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호주 사회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현재에는 다양한 문화기관들이 수 천개에 달하는 인터뷰를 보관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주민에 대한 구술사 연구는 이들의 정체성이 미디어를 포함한 다양한 자원에 기반하여 형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기존 국민-국가 중심의 역사가 배제해 왔던 이야기들을 들춰내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한민족다 문화 협력적 구술 생애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할린 한인에 대한 연구(문현아 PARK 2016) 또한 기존 연구와 대한민국의 주류 역사에서 잘 포착되지 못한 디아스포라 경험을 재조명한다. 이 연구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의 여러 국경과 문화를 넘나들며 역동적이고 초국적인 문화정체성과 다양한 이주 경로와 국적 선택에 대한 서사를 소개한다. 이들의 디아스포라의 경험은 남겨진 슬픔이나 고국으로 귀국한 기쁨이라는 이분법적 틀로 귀결되는 국민-국가 중심의 서사를 뒤흔들고자 했다. 이 점이 이들의 구술사와 거주 장소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다문화공간으로 알려진 안산시의 중요하 도시 유산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이유이다.

이처럼 실험적이고 실천적인 연구방법론인 ‘협력적 구술 생애사’는 구술사 연구에 대한 관심으로 나아갔고 이후 공공역사로 발전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공공역사로서 출발한 구술사는 개인적 서술과 자전적 기억을 수집하여 과거 경험의 ‘다름’을 기록하는 수단이 되었다. 그런데 구술사에서 정작 개인적 서술과 기억이 채록을 통하여 공공기억이 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인류학자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이 연구는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고령의 구술자를 찾고 성별과 다양성을 적절히 배분하여 이들의 삶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과 수집된 이야기를 편집하여 사진들과 함께 전시하여 대중들과 공유하는 것에 집중했고 이 점에 의의를 두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오늘날 구술자료를 수집하는 많은 공공기관처럼 필자를 포함한 연구진은 수집된 삶이야기를 사료로서의 구술자료로 보는 인식이 부족했다(윤택림 2021). 다시 말해 참여 서명동의서, 구술자료 공개 및 활용 동의서와 같은 인구대상연구의 연구윤리와 구술자료 공개와 활용과 관련된 법적 윤리

적 쟁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이 없었다(Park 2022). 더 나아가 여러 사람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수집된 구술자료가 체계적이고 개방적인 체계에 의해 아카이브 되지 않아 개인의 자전적 기억이 공공기억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이번 호 이정연 참조).

3.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과 도시 시민권

공공역사를 위한 구술사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코로나19가 창궐하며 필자는 전례 없는 글로벌 현상과 국민-국가의 부상을 목도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민 중심 건강보험 가입 조건과 국민과 외국인 등록 체제로 중앙화 된 국민건강보험 관료주의에 기반한 백신 예방접종과 마스크 배급이다. 이는 미등록을 포함한 일반 이주민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다주었다. 이른바 'K-방역'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선제 검사와 격리는 거주가 취약하고 사회보장이 부족한 이주민에게는 부당한 경제 사회적 부담은 물론 문화적으로 주변화 되고 타자화 되는 경험으로 이어졌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의학적인 현상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현상이다. 정치적 현상으로서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백선 국민주의(nationalism)를 탄생시켰으며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확산시켰다(이서영, 2022). 특히 국경 봉쇄로 인해 만료된 비자로 거주국에 남아야 했던 계절 또는 단기 이주노동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서구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인종주의적 반응 때문에 아시아계 소수민족 집단이 차별과 폭력을 경험했다. 세계 곳곳의 구술사 연구자들은 현재 진행형인 글로벌 건강위기 현상을 기록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이주민, 보건의료인, 확진 경험자, 코로나 사망자의 유가족, 실업자 등등 각계 계층의 도시주민들의 경험 이야기를 온라인 줌(Zoom), 스카이프(Skype) 등 새로운 방

법으로 수집하였다(INCITE n.d.; *The City* 2020년 5월 6일). 구술사와 공공 역사의 발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한편 2020년 3월 30일 대한민국 정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애초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하기로 했다가 논의 끝에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 되었다. 문제는 이런 방침에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비국민은 제외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코로나19 재난긴급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 주민을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연합뉴스 6월 11일). 이런 결정의 근거는 서울시와 경기도는 모두 조례를 통해 관내에서 90일 넘게 거주하는 외국인을 “외국인 주민”으로 정의하고, 별도 예외 규정이 없으면 내국인 주민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논쟁 속에서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5월부터 외국인 주민에게도 1인당 7만 원씩(내국인이 받는 금액의 70%)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일간경기』 2020년 5월 8일). 뒤를 이어 서울시 또한 7월부터 외국인 재난긴급생활비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가구 단위로 지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는 흥미로운 소식을 접하게 된다. 2020년 2월 19일 안산시가 한국에서는 첫 번째,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되었다는 것이다.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Intercultural Cities Program)은 2008년 유럽연합이 문화 다양성 증진을 위해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2020년 현재 44개국 136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다. 상호문화도시 개념은 2004년 영국의 한 씽크탱크 코미디아(Comedia)가 기존 다문화주의와 국민-국가 틀을 넘어 도시의 문화 다양성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제시되었다(Wood 2009).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인구로 구성된 도시에서 시민 간의 협력과 소속감, 즉 도시 성원권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연합의 상호문

화도시 프로그램은 도시 시민권을 주요 개념과 실천 원칙으로 삼고 있다 (박준규 2023).

도시 시민권은 차별, 국경 강화, 강제추방의 원칙이 되어 버린 국민-국가의 공식적 성원권으로 이해되는 시민권의 한계에 주목하고 용어의 어원인 도시에 다시 집중하여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역동적으로 이동하고 정주하는 도시 주민(시민)의 복합적 권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도시에 대한 권리, 즉 자유, 개인화, 사회화, 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거생활권과 정주를 중심으로 한 거주권이다.

사회적 공간이론에 착목해 온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vre)는 도시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도시 자체가 현시대의 에피스테메가 되었다고 주장했다(Isin 2002). 즉 도시는 오늘날 글로벌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삶의 주요 부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무의식적 기초이자 궁극적 원리가 됐다. 자본주의 공간으로 생산된 도시는 새로운 개척지처럼 개발, 소비, 문화, 시장 등등 신자유주의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여기에 에드워드 글레이저(Edward Glaeser) 같은 학자들이 도시를 혁신, 변형, 민주주의의 엔진으로 바라보는 도시적 승리주의가 가세하여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사는 ‘지구촌의 도시화’가 상징화 됐다(Saitta 2020).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글로벌도시, 창의도시, 스마트도시, 디자인도시, 생태도시 등등을 내세운 ‘도시주의(Urbanism)’가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추진하며 도시의 불평등과 파편화를 증가시켰다. 도시 공간은 생산양식과 더불어 변화해 왔다. 공간은 ‘사회’와 더불어 변화한다. 그런 측면에서 자본주의 방식 공간의 역사가 존재하는 현재의 도시 공간은 더는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도시주의에 대한 인식론적 재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도시 거주민들의 정치참여권, 사회문화권, 사회보장권을 기초로 한 ‘도시에 대한 권리’와 직결된 도시 시민권(urban citizenship)에 대한 구체적 고민이 필요하다(Isin 2002; D’Alessandro 2019).

흥미로운 것은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과 이 프로그램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이주민의 도시에 대한 권리라고 할 수 있는 도시 시민권이 도시 공간 또는 공공 공간의 유산화와 직결된다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도시는 포용적 통합과 결속을 위한 노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되찾고 있다. 이는 도시가 세계적이면서 동시에 국민-국가가 아닌 지역적인 중간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 전역에서 지역화와 분권화로 인해 예술과 문화생활의 자금 지원자, 조정자, 때로는 주최자로서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유럽 도시들이 점점 더 인종적으로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예술과 유산도 더욱 다양하고 다면적으로 되었다. 도시의 모든 예술과 유산은 역사적으로 성장해 온 동시에 지속적인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능동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노르웨이 오슬로 상호문화박물관이다. 상호문화도시 오슬로는 박물관을 가능한 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대화의 공간으로 생각하고 세대 간 관계, 문화 간 관계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통과의례와 같이 보편적이고 공유된 문화의 측면을 활용하여 인종적 차이를 뛰어넘는 연결고리를 만들고자 상호문화박물관을 설립하였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평등한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정신으로 박물관은 설립 초기부터 경영진에 이민자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다양성을 존중하고 평등한 시선을 지향한다. 또한 도시의 가장 다양한 지역을 둘러볼 수 있는 투어를 마련하고 과거와 현대의 이민자 커뮤니티와 다양한 인구 집단 간의 상호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소수민족 출신 예술가들이 기존 네트워크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돕고, 갤러리에서 전시하고 다른 전문 갤러리와 박물관에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오슬로 대학 및 반인종주의 센터와 협력하여 노르웨이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주제를 다루는 일련의 공개 토론 및 회의를 비롯하여 전시, 토론 및 세미나를 통해 이주민의 권리를 옹

호하는 공공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Council of Europe n.d.).

국내의 경우 실험적이고 일시적인 민속전시 “내 이름은 마포포, 그리고 김하나”라는 특별전이 사례할 수 있다(조성실 2025; 윤택림 이번 호에서 재인용). 2012년 8월 8일에서 10월 1일까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진행된 이다문화 특별전은 결혼이주여성을 주인공으로 하여 국제결혼의 증가로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 사회를 전시로써 재현해 본 것이다. 또한 이다문화 특별전은 이주 여성들의 고향에 대한 추억, 혼례, 그리고 한국에서의 문화적 갈등과 극복 그리고 밝은 미래를 소개하는 전시로서 구술사 자료의 활용이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필자가 추구하는 이주민의 도시 유산의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일시적인 특별전으로 진행되었지만 “일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사회 각 계층에 대한 문화 등 현장 속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결혼이주여성 삶의 이야기를 전시했다는 것은 “일반 사람과 사회 각 계층”이 한민족 (Korean ethnicity) 중심이 아닌 다른 민족도 포함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다문화 특별전이 앞서 언급된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과도 연결될 수 있는 점은 모든 전시 오브제에 대한 설명이 전시 큐레이터나 박물관 측이 아닌 결혼이주여성들의 시각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이다. 다문화 특별전은 이주민의 관점, 즉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도시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을 가시화하고 이주민에 대한 평등한 시선을 만들고자 했다는 점에서 오슬로 상호문화박물관의 전시와 비슷하다. 조성실(2015)은 “모든 전시 오브제는 다문화전의 소스 커뮤니티인 결혼이주여성들의 구술 자료를 함께 기술하는 것으로 관람객에게 소개 되었”고 “아끼던 프라이팬, 부모님의 치아, 사진, 꼬깃꼬깃한 성경책과 이민가방 등 닳고 닳은 여성들의 소장품은 그들의 목소리와 함께 전시장 안에서 이야기되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4. 비판적 유산 연구와 도시유산

이미 언급한 것처럼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 특히 국민-국가의 그리고 국민-국가 간의 영역으로 확산하여 온 유산이란 개념 또한 지속적인 논쟁 속에서 구성된 역사의 결과물이다. 학계에서 유산에 대한 이론적 검토의 출발점은 ‘유산 논쟁’이다(Coupland 2012). 1980년대에 많은 비평가가 국가의 유산에 대한 ‘집착’을 폭로하고, 소위 ‘유산 산업’이 상업적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역사적 정확성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는 과거에 대한 방종과 향수를 조장한다고 폭로하면서 학자들 간에 광범위한 (그리고 종종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교류가 시작되었다. 쿠프랜드(Coupland 2012)는 유산 논쟁의 두 가지 핵심적인(그리고 서로 겹치는) 특징을 ‘유산 대 역사’와 ‘유산의 현재적 기능’이라고 요약하고 있다.

『과거는 낯선 나라다』(2016)의 저자인 데이비드 로웬탈(David Lowenthal)은 역사와 유산이 같은 방식으로 과거와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Coupland 2012). 역사는 ‘이질적인’ 과거를 탐구하고 설명하는 반면, 유산은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에서 소비 할 수 있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이처럼 많은 역사가들은 과거를 현재에 상품으로 사용하는 ‘유산 산업’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이들은 유산 산업에서 역사가 대중 소비자를 위해 포장되고 있으며, 그 결과 필연적으로 ‘나쁜 역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유산 논쟁에 참여한 여러 역사가는 유산 호황의 정치적 의미를 강조하며 유산을 ‘하향식’으로, 즉 국민-국가 중심의 과거에 대한 집단적 감각을 촉진하여 일종의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도구, 즉 국민-국가 형성의 도구로 보았다. 실제로 특정 정치 이데올로기를 지지하기 위해 국민-국가 유산을 적절히 활용하려는 노력이 종종 있었지만, 유산 산업이 발전한 데에는 다른 동기도 있었다. 유산 관광은 특히 산업화 이후 지역에서 경제 재생의 수단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의미에서 유

산은 국민·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거나 되찾는 것에 대한 집착이라기보다는 과거의 가치를 현재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능을 가진 상품으로 인식하는 훨씬 더 광범위한 현상이다.

하지만 모든 역사가가 유산을 다루는 것을 꺼리는 것은 아니다. 역사를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현상으로 바라본 급진적 역사가이자 역사 워크숍 운동의 선구자인 라파엘 사무엘(Raphael Samuel)은 역사가 현대 사람들의 정체성과 ‘역사성’에 대한 인식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사무엘은 유산을 가짜 역사라고 보는 입장을 비판하면서 역사 지식을 구축하는 데 있어 역사가와 대중 간의 긴밀한 대화를 촉진하여 과거를 민주화하고자 하는 공공역사의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했다(Samuel 2008).

유산을 사회적/인류학적 과정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이현경(2019)은 국민·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국제 관계 외교의 핵심 역할을 하는 방면 최근에는 개인의 삶과 깊은 연관성을 맺는 방향으로 그 역할을 확장하여 개인의 치유와 사회적 웰빙 강화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한다. 구체적인 사례로 영국의 신석기 유적지인 스톤헨지(Stonehenge)에서 진행된 휴먼헨지(Human Henge) 프로그램이 있다. 프로그램을 개발한 고고학 교수 팀 다빌(Tim Darvill)은 스톤헨지가 치유의 장소로서 병들고 다친 사람들이 실제로 이 장소에서 회복되었다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며 스톤헨지 유적지를 심리치료의 장소로 사용하고자 했다(이현경 2019: 78).

분명한 것은 유산을 단순히 하나의 포괄적인 개념이나 관행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산 논쟁에는 국가적, 지역적/대중적, 상업적 등 서로 다른 수준에서 작동하는 적어도 세 가지 종류의 유산이 존재한다(Coupland 2012). 오늘날 유산 호황은 보존 관행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접근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 사실상 유산은 공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역사와 일상생활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토속적인 것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되면서 더 넓은 범위로 확장되었다. 즉, 유적지가 더 이상 귀족의 영

지와만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 현장과 같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장소도 포함하도록 변화하면서 공공역사의 영역과 가까워졌다.

실천 측면에서 볼 때, 공공역사에 대한 일부 접근 방식은 프리쉬(Frisch)의 ‘공유된 권위(shared authority)’ 개념을 바탕으로 역사가와 대중 간의 협력적 실천을 촉진하는 등 역사 만들기를 민주적으로 하고자 했다(윤택림 2020: 17). 따라서 공공역사가들은 ‘대중’에 더욱 집중하고, 사회사적 이상에 따라 역사 지식의 구성에 ‘아래로부터의’ 서사를 통합하려고 노력해 왔다. 반면에 유적지와 전시물은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와 같은 더욱 전통적인 기관의 관점에서 볼 때, 과거를 대중에게 보여주는 교훈적인 측면이 더 강했다.

로라제인 스미스(Laurajane Smith)는 ‘유산을 어떻게 정의하든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관찰하는 것이 비판적 유산 연구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하며 비판적 유산 연구(critical heritage studies)의 활성화를 주장한다. 그녀는 이어서 유산 관행이 사람들의 삶에 정치적, 정서적, 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폭넓게 이해해야 한다고 역설한다(Coupland 2012). 이런 맥락에서 비판적 유산 연구는 “과거는 낯선 나라다”라는 논의에서 유산은 ‘미래 창조’를 위한 강력한 자원으로서 인식하고, 유산의 근본적인 재개념화가 정체성, 조상, 문화 전승에 대한 주장뿐만 아니라 당대 주요 도덕적·윤리적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고유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논의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Gentry & Smith 2019).

윈터(Winter 2013)는 비판적 유산 연구에는 후기 서구(post-western) 관점과 유산 보존 분야와의 생산적 실천적 대화라는 두 가지 경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오늘날 유산이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개발, 인간 안보, 다문화, 분쟁해결 등등과 같은 논쟁이나 정책 논의에 주요한 주제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가 관심을 가지게 된 유산 종류는

지역적/대중적 유산이며 이주민의 일상생활과 기억과 관련된 장소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글로벌 위기 시대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한국사회의 주요 도덕적-윤리적 문제는 이주민의 정주 또는 이민을 인정하지 않는 단일민족 신화와 폐쇄적 국민주의라고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호문화도시와 같은 포용적 도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게 된 것이다.

위에서 논의된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 또한 도시에 초점을 두고 있는 유산이 도시 정체성의 보고 역할을 한다고 본다(Council of Europe n.d.). 도시 유산은 도시에 살고 있는 개인 또는 커뮤니티가 미래 세대에 물려줄 가치가 있는 것을 식별하는 복잡한 사회적 과정인 도시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여기에는 관행과 전통뿐만 아니라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장소 만들기의 일부가 되는 의미의 그물망도 포함된다. 또한 국민-국가 정체성과는 달리 도시 정체성은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국경을 넘나들고 복수의 시민권을 가지고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유산에 대한 상호문화주의적 접근 방식은 장소 만들기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도시가 도시 정체성을,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신뢰와 상호 인식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모두를 포용하는 정체성을 통해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Council of Europe n.d.).

구스타보 지오반노니(Gustavo Giovannoni)는 이전에는 느슨한 개념으로만 존재하다가 나중에 이름을 얻게 된 ‘도시 유산’이라는 용어를 실제로 발명한 인물이다(Veldpaus, Roders & Colenbrander 2013). 지오반노니는 역사적인 도시를 기념비이자 동시에 살아있는 구조물로 정의하면서 도시 개발의 중요성을 배제하지 않고 도시 규모의 유산 보호를 주장하고 장려했다. 20세기 전반기에 가장 중요한 이론가이자 실천가 중 한 명인 지오반노니는 ‘상호 지원적이고 조화로운 공존, 즉 갈등을 피하고 양쪽의 고유한 특성을 존중하며 창의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도시는 사람들의 기억을 통해 거리와 건물, 이름 모를 얼굴들이 어지럽게 뒤섞인 집합체가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다. 또한 사람들의 기억은 도시에 정체성을 부여하고, 이 정체성을 통해 시민들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같은 기억을 대거(Dagger)는 시빅 기억(civic memory)이라고 말한다(Dagger 2000). 더 나아가 도시의 과거와 과거 시민들이 도시에 기여한 바를 아는 사람은 도시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된다(Cunningham 2011).

기억은 개인이든 집단이든 상관없이 항상 공간적 차원을 가지고 있다. 장소는 존재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어떤 사건도 맥락 없이는 상상할 수 없다. 개인의 기억은 서로 연결된 사회적, 물리적 맥락 안에서 구성된다(Halbwachs 1992: 53). 이러한 맥락에서 건축 환경은 개인과 집단의 의식적인 행동을 통해 (재)생산되며, 특정 장소의 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정 장소에 국한된 기억, 이를 ‘도시 기억’이라고 할 수 있다.

리코르(Ricoeur 2004: 150-151)는 개인의 이주, 심지어 정주도 공간에 새겨진 점, 선, 표면, 부피에 대한 참조 없이는 정의할 수 없다고 말한다. 공간에는 개인 및 사회생활의 진화와 관련된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그는 서사화 된 시간과 구성된 공간 사이에 겹침이 있다고 말한다. 서사와 구성 작업은 비슷한 종류의 각인을 가져온다. 각각의 새로운 건물은 도시 공간은 상호텍스트성의 설정 안에 존재하는 서사처럼 새겨져 있다. 서사는 시간에 대한 기록이고 구성물은 공간에 대한 기록이다. 그리고 도시는 서사화 된 시간과 채워진 공간이 고립된 건물보다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장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건축학과 도시계획학에서 인간 생활과 관련된 물리적 구조의 전체를 뜻하는 건조 환경(built environment)은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생산되는 사회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며, 독특한 조건으로 인해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 장소의 정체성은 도시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상호관계를 통해 형성되고 진화하며, 그 결과 다양한 형태와 토지 활용, 의미로 나타난다. 사회적으로 생산된 정체성은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장소의 본질적 특성을 포괄하기 때문에 도시 공간의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분석틀에서 장소의 정체성은 도시 공간에 개입하기 위한 질적 접근의 개발과 그 질적 향상을 위해 고려되어야 한다(Selvi Ünlü 2019).

필자는 개인의 일상생활 경험과 장소에 부여된 의미에 내재한 장소의 국지적 특수성을 분석, 이해 및 설명하고 도시 공간 형성을 위한 장소 기반 의사 결정을 개발하기 위해 구술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간 연구에서 구술사를 사용하는 것은 다양한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주로 두 가지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도시 공간의 진화와 그 의미를 기억 속에 기록하려는 의도이다. 두 번째는 도시 공간에 개입할 수 있는 지식을 생산하는 것이다.

한편 구술사를 통해 습득한 지식을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시각화하고 공간화하는 새로운 선구적인 연구도 있다(Selvi Ünlü 2019; Tebeau 2013). 인구 이동과 이주의 결과로 다른 문화가 만나 도시 공간이 형성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있다. 예를 들어 장소의 상징적 의미와 그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공간적 관계가 개인의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설명하고자 한 연구(Robbins & Robbins, 2015)와 구술사를 활용하여 도시 전체 또는 지역 단위의 규모에서 ‘장소’와 ‘정체성’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본 연구(Tebeau, 2013)가 있다.

또한 옵과 월쉬(Opp & Walsh 2010)는 집단적 기억이 재생산되는 장소로서 공공장소를 조사하는 연구에서 구술사 방법을 활용하여 ‘기억의 공간’을 중심으로 공간의 의미에 대해 질문한다. 이 책에 수록된 글들은 “상상된 공동체,” “수행적 기억,” “지리적 상상력의 지도학적 환상”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기억과 기념 관행에 의해 의미 있는 장소가 되는 장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장소가 기억의 형성과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힘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옵과 월쉬는 이 같은 장소와 기억에 대한 관심은 ‘기억 위기’를 가져왔다고 말한다(Opp & Walsh 2010: 4). 구체적으로 기념비, 추모비, 전시, 의례, 연행 등등을 중심으로 기억과 기념 관행을 통해 장소로 만들어지는 실천들과 이에 대한 수 많은 연구가 세계화에 역행하는 국민-국가 강화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특히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는 기억의 장소(sites of memory)는 주로 권력에 의한 배치, 규정, 순찰 과정을 통해 배제와 특권의 역사를 일반화 해 왔다고 말한다(Opp & Walsh 2010: 14). 기억의 장소는 기존 기록의 역사에 대한 한계를 기억을 통해 극복하고자 피에르 노라(Pierre Nora)가 제시한 개념으로 “한 민족 또는 한 공동체 집단 기억의 상징적 요소로 고착된 물질적, 비물질적 장소를 의미”한다(조은영 2016). 노라는 기억의 장소를 특정한 사물이나 장소, 기억을 담고 있는 상징적인 기호, 그리고 기억을 구축하거나 보존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하나로 설명하는 개념적 틀로 보고 있지만 데이비드 하비는 권력을 추가하여 기억의 장소가 국민-국가의 권력에 의해 이주민과 같은 비국민과 장애인과 여성과 같은 주변화된 계층이 배제되고 특권 집단의 기억이 부각된다고 비판한다.

그런데도 기억의 장소화와 장소를 기억하는 전략과 실천은 국가폭력 피해자나 동성애자 공동체나 사라진 산업의 노동자들에게는 저항과 투쟁의 장이 될 수도 있다. 장소와 기억의 재구성을 특징짓는 유동성과 불확실성은 매우 구체적인 국지적(local) 맥락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균열의 공간을 제공한다. 여기서 ‘로컬’은 단순히 사례 연구를 위한 편리한 척도로서 본질주의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장소의 정치와 기억의 정치 사이의 미묘한 차이와 간극을 드러내 준다.

구술사를 통해 얻은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는 물리적,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도시 공간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즉, 로시(Rossi 1984: 130)의 말을 빌리자면 도시는 그 자체로 사람들의 집단적 기억이며, 사물과 장소와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도시는 집단기억의 ‘소재지’가 된다. 집단 기억이 도시 공간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기억은 건조 환경과 완전히 복잡한 도시 구조의 형성에 지침이 된다.

이에 필자는 국민-국가라는 상상된 공동체가 아닌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라는 국지적 장소와 이 공간 내에서 상호작용하고 교류하는 공동체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도시 또한 기억과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즉 과거를 현재로 재현하고 다시 미래로 보내는 장소 만들기 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소속감을 증진하고자 한다는 의미에서 상상된 공동체일 수 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서로가 하나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말 그대로 상상하는 국민-국가보다는 많은 수의 사람들과 일상에서 상호작용하고 교류 하며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도시 또는 동네의 실천 공동체(communities of practice)라고 할 수 있다(Wenger 1998). 다시 말해 선택과 배제를 통한 동질적인 것으로 상상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다양성이 존중되고 상호교류가 실천되는 도시 공동체를 상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이주민의 도시 유산 개념증명: 안산시 고향마을

지금까지 구술사를 통한 이주민의 도시 유산 만들기예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안산시 고향마을을 이주민의 도시 유산에 대한 개념증명 사례로 제시하고자 한다. 필자가 안산시 고향마을과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의 구술사로 이주민의 도시 유산 만들기를 시도하고자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필자가 이미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구술사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한민족다문화 프로젝트는 총 70명의 구술자를 인터뷰했으며 이 중 17명이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이다 (문현아 Park 2016). 이들 대부분은 안산시 고향마을에 거주하고 있으며 1930년대 출생으로 1930-40년대에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따라 사할린에 이주하거나 사할린에서 태어난 경우이다.

‘한민족다문화’ 용어는 한민족은 단일하거나 고유하고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며 한민족으로 여겨지거나 스스로 자신이 속한 민족으로 정체성화하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개념이다. ‘우리’와 동일시되는 한민족 내에는 다양한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한국 내외에서 살며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nation)’의 대다수라고 할 수 있는 한민족 구성원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한민족 구성원이 다양하다는 것은 세계 곳곳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한인들에 대한 다양한 분류인 조선족, 고려인, 사할린 한인, 재일조선인, 재미교포, 재외동포 등등이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회는 단일민족신화를 통해 한민족의 고유성과 동질성을 강조하는 한편 외국에서 한민족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거나 공유하고 있다고 상상하는 한인 이산집단(Korean Diaspora)을 거주국 중심으로 서열화하고 차별하고 있기 때문이다(Park 2020).

한민족다문화 프로젝트의 문제의식은 한인의 이주·월경 현상은 문화적 공존을 넘어 사회다원화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인 이산집단 또는 디아스포라 개념이 가지고 있는 단일민족성에 대한 신화를 깨고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주와 다문화 현상에 대한 재규정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Park 2020). 이 핵심에는 ‘주류적인 우리’와 ‘타자인 그들’ 사이의 관계, 즉 민족의 성원권에 대한 재규정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한국사회에서 법적으로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어도 한국사회의 선주민 주류집단은 ‘우리’에 속하고, 북한 이주민, 중국 조선

족, 사할린 귀환이주자 같은 다른 국민국가 출신 집단은 ‘그들’로 타자화, 주변화되어 2등 시민으로 취급하고 차별적 편견으로 대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비록 적은 수의 구술자료이지만 한민족다문화 프로젝트 연구팀이 수집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구술 생애사는 이들의 삶이 단일하게 정리되지 않고 복잡다단한 중층적 층위를 넘나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들의 이주 경로는 거주국과 본국이라는 이분법적 틀에서 벗어나 단선적이기보다는 중첩되는 역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무엇보다 단일하고 불변한 것으로 여기지는 민족·국민 정체성은 이들의 구술 생애사에서는 상식, 포기, 취득하는 과정이며 다층적으로 가변적이다.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구술 생애사는 조선시대, 식민지 시대, 한국전쟁과 냉전으로 인한 한반도의 분단과 이데올로기적 군사적 대립, 소련의 붕괴, 탈냉전, 탈식민, 그리고 세계화로 점철된 20세기 근현대사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비판적 유산 연구의 후기 서구 관점과 일맥상통한다. 앞으로 고향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구술사 수집을 확대해 나가면 더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삶의 궤적이 그리는 차이와 개별성은 동질적인 경험을 하는 상상된 공동체로 동화시키기보다는 존중되고 유산화될 필요가 있으며 상호문화도시 안산시의 문화 다양성에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고향마을이라는 장소성 때문이다. 먼저 최근 구술사 연구에서는 기억과 스토리텔링의 호황과 구술사의 대중화로 평범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기억과 이야기가 수집되어 전시, 영화, 공연, 출판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에게 공유되고 있지만 유산화와 마찬가지로 국민·국가의 정체성과 역사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더 나아가 미국의 스토리코어(StoryCorps)와 같은 개인 스토리텔링과 기억 중심의 구술사는 대중적(public), 자서전적(autobiographical) 그리고 고백

적(confessional) 접근을 강조하면서 신자유주의 시대에 성장한 개인개발 또는 자조산업(self-help industry)과 결합하여 신자유주의, 초개인주의(hyper-individualism), 치료문화(therapy culture)를 부추기고 있어 연구윤리적 성찰이 필요하다(Freund 2015).

필자는 그동안 이주민의 도시 유산을 찾기 위해서 안산시 다문화특구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의 구술사를 수집하려고 했다. 하지만 한국어가 가능한 이주민을 찾고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느낀 것이 이들이 이미 기자들과 다른 연구자에 의해 인터뷰를 진행한 상황이며 내용 또한 이미 공유된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와 비슷하게 사회를 원자화(atomize)하고 구술자를 가난, 차별, 억압 등 불가항력적 상황 속에서 개인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주인공 같은 인상을 준다. 프로인드(Freund 2015: 97)는 이런 스토리텔링은 개인의 자율성, 자유, 권리에 대한 자유주의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며 의도치 않게도 모든 경제, 사회, 문화적 문제에 대한 소비주의, 경쟁, 자유 시장 해결책이라는 신자유주의적 가치를 지지한다고 역설한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는 개인의 기억과 자서전적 이야기뿐만 아니라 장소와 연결된 이주민의 기억과 서사를 찾게 되었고 그 결과 원점으로 돌아와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안산시 고향마을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고향마을은 사할린 한인을 위한 전용 50년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이다. 23평형 규모의 아파트로 총 489세대로 구성된 단지는 안산시 소재 지하철 4호선 한대앞역 건너편에 위치하였으며 1994년 사할린 한인의 한국방문 및 영주귀국 지원을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의 합의에 따라 1999년부터 건설 공사가 시작되어 2000년 초에 완공되었다.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은 2월부터 입주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에는 542세대의 가구(837명)이 거주하였고 2016년에는 643명이 거주하였는데 이 중 333명이 80세 이상이다. 2023년 현재 472세대의 가구가 거주 중이다(『경기남부뉴

스』 2023년 5월 29일). 안산시 고향마을은 안산시의 다양한 이주민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여 아래로부터 형성된 원곡동이나 고려인 집거지인 땃골 마을과는 달리 한국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개입하여 마련한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도시 유산의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이 문화적 상징물로서의 아파트를 새로운 집으로 삼고 살고 있는 장소이다(임성숙 2022).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은 안산시 고향마을 외에도 인천을 포함하여 전국 30개 지역에 분산 거주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4,408명으로 집계되었다(임성숙 2022: 626). 이들은 2000년부터 시작된 소위 대규모 집단 영주귀국 사업에 의해 한국으로 이주하였으며 2015년 한일 정부의 공동사업이 종료 되면서 이후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주관해 왔다. 2021년에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영주귀국 자격자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이처럼 2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고향마을은 안산시의 도시 유산으로 채택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안산시가 한국의 대표적인 다문화 공간으로 알려져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이주민을 포용하는 상호문화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이주민의 장소로서 안산시를 더 살펴보자면 안산시는 이주와 깊은 관계가 있다. 안산시는 1980년대 초 반월공단이 조성되면서 서울에 있던 공장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공단 노동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전국 곳곳에서 안산으로 이주하게 된다. 그러나 1990년대 초부터 한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의 산업구조 재편으로 많은 제조업 공장이 더 낮은 임금을 찾아 중국으로 이동을 하면서 중소기업 제조업 중심의 반월공단은 침체하게 되었고 공단 노동자들이 대거 이탈한다. 한편 세계 경제의 변화는 아시아 지역 내의 국제적 노동 이주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그 결과 한국은 이주민 송출국에서 이주민 유입국으로 바뀌게 되고 1993년 산업연수제가 도입되면서 중국과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상당수의 이주노동자가 안산으로 모이게 됐다. 2024년 1월 현재 안산시 외국인 주민은 115개국 출신 95,995명으로 대한민국의 ‘다문화 수도’라고 불릴 수 있는 최고 이주민 밀집 지역이 되었다(안산시청 2023).

국민-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국민 지위와 시민권 기준에서 벗어나 도시의 일상을 공유하는 주민에게 도시가 재난위기시에 지원을 한 사례이다. 이 외에도 안산시는 코로나19 시기 다양한 언어로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배포하여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이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다. 이처럼 안산시는 유럽연합의 여러 상호문화도시와 같이 다양한 문화와 국적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을 포용하고 통합하여 도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포함하고자 하고 있다. 물론 완벽하지 못하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안산시 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것이 아니며 이주민의 지위 특히 비자 문제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있다. 한국사회 내에서 안산시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위험한 곳으로 낙인화되어 있으며 안산시 내에서도 이주민의 포용과 통합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한국사회에서 상호문화도시를 현실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도시는 안산시라고 볼 수 있다. 안산시가 상호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높은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그중 하나로서 이주민의 도시 유산을 만들어 안산시 모든 주민과 한국사회와 공유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필자는 아파트 단지 설계도와 같은 안산시 고향마을 아파트 단지의 건축사, 다문화 특별전 내용과 비슷하게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의 이주와 안산에서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소장품들과 그들의 목소리를 활용한 작은 마을 박물관을 만들어 이주민의 도시 유산을 한층 더 구체화하고자 한다.

6. 맺는 글

인류학에서 어셈블리지(assemblage)는 한 사회 내의 관습, 신념, 유물 등의 문화적 요소의 역동적인 조합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이다. 어셈블리지는 문화 구성의 유동적이고 우발적인 특성을 강조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는 이주민의 도시 유산에 대한 설명을 위해 필자가 10여 년 동안 연구해 온 구술사와 공공역사, 상호문화도시주의, 비판적 유산 연구 등과 같은 다양한 연구방법론의 역동적 조합을 시도하였고 이를 통해 이주민의 도시유산에 대한 개념증명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했다.

필자는 21세기 대한민국은 다민족 국민-국가(multi-ethnic nation-state)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대한민국은 외국 출신 주민과 후손의 인구가 전체 인구수의 5%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다문화사회의 인구적 조건에 근접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민정책이 부재하고 귀화한 외국 출신 한국인을 문화적이나 사회적으로 한국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직도 단일민족 신화가 존재하며 민족/국민주의가 강화되면서 외국인 또는 이민족 집단을 혐오하는 제노포비아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다중위기 시대에 국민-국가 중심의 정책과 정체성은 위기를 해결하기보다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은 당연하고 세계 곳곳 많은 도시가 국민-국가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이다.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은 도시의 장소성과 도시 구성원의 기억 및 정체성과의 상호연결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도시의 공공장소를 유산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문화 다양성을 핵심 요소로 삼고 있는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은 이주민의 도시 유산 만들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필자는 비판적 유산 연구 검토를 통해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주민의 도시 유산 만들기는 공공 역사를 지향하는 구술사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첫째, 일반적으로 역사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다 (연구 주제는 현대에 가까울 수 있다. 그러나 거의 항상 더 긴 역사적 프레임이 있다). 그러나 구전 전통과는 달리, 한 세대의 직접적인 기억과 직접적인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연구의 주제가 기억과 개인과 집단의 기억이 어떻게 구성되고 전달되는지에 관한 것이더라도 구술사는 과거의 재현과 표상에 대해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과거에 관해 묻는다.

두 번째 구술사는 물리적 역사 기록(여러 종류의 기록, 대부분 오디오 또는 비디오일 가능성이 높지만 인터뷰의 녹취록 일 수도 있음)뿐만 아니라 기록이 만들어지거나 더 근본적으로 역사 자체가 만들어지고 다시 만들어질 수도 있는 역사학적 접근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2명 이상의 개인 즉, 연구자와 구술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적극적인 역사 기록을 생산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처럼 구술사를 통해 만들어진 이주민의 도시 유산은 도시의 민주화, 다양한 출신과 문화 집단 간의 사회통합, 문화 다양성 중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상호문화도시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문현아, PARK Christian Joon, 2016, “사할린 디아스포라 한인의 초국적 경험과 의미 분석,” 『구술사연구』 7(1): 137-186.
- 박정하, 2022, “남미 출신 1.5세 한인의 이주 경험과 초국가적 정체성: 스페인어 문화 자본 형성과 활용 전략을 중심으로,” 『구술사연구』 13(1): 81-124.
- 박준규, 2023, “글로벌 건강위기 시대 이주민의 도시 시민권,” 『의료와사회』 12: 124-138.
- _____, 2022, “공공역사 구술자료 활용과 법적/윤리적 쟁점: 북미 사례를 중심으로,” 『구술사연구』 13(1): 177-217.
- 유철인, 2021, 『이주의 기억, 기억의 이주』, 학고방.
- 윤택림, 2020, “개인적 서술에서 공공의 기억으로: 구술사와 공공역사,” 『구술사연구』 11(1): 9-45.
- 이서영, 2022, “코로나19 시기 이주민 건강권의 위기,” 『의료와 사회』 11: 83-95.
- 이현경, 2019, “과정(process)으로서의 유산과 그 유산의 해석,” 『미술이론과 현장』 28: 61-84.
- 임성숙, 2022, “사할린 한인의 영주귀국과 문화 상징으로서의 주거공간,” 『문화와 융합』 44(4): 621-635.
- 조성실, 2015, “구술사를 활용한 민속전시 연구: ‘촌로의 한평생’에서부터 ‘나의 출산이야기’까지, 국립민속박물관 특별 전시를 중심으로,” 『구술사연구』 6(2): 147-175.
- 정수진, 2023, “문화유산 시대의 민속학과 문화유산 연구,” 『실천민속학연구』 41: 229-263.
- 조은영, 2016, “도시의 기억을 어떻게 보존할까? -서울미래유산 사업의 사례연구-,” 『문화예술경영학연구』 9(2): 31-51.
- 함한희, 2000, “구술사와 문화연구,” 『한국문화인류학』 33(1): 3-25.

- Collier, Stephen J. & Aihwa Ong, 2005, “Global Assemblages, Anthropological Problems,” in Stephen J. Collier & Aihwa Ong, eds., *Global Assemblages: Technological, Politics, and Ethics as Anthropological Problems*, pp. 1-21, Malden: Blackwell Publishing.
- Council of Europe, n.d., “The Role of Cultural Heritage in Enhancing Community Cohesion: Participatory Mapping of Diverse Cultural Heritage,” Council of Europe.
- Coupland, Bethan E., 2012, “Heritage and Memory: Oral History and Mining Heritage in

- Wales and Cornwall,” Ph.D. dissertation in History, the University of Exeter.
- Cunningham, Frank, 2011, “The Virtues of Urban Citizenship,” *City, Culture and Society* 2: 35-44.
- Dagger, Richard, 2000, “Metropolis, Memory, and Citizenship,” in E. Islin, ed., *Democracy, Citizenship, and the Global City*, pp. 25-47, London: Routledge.
- D'Alessandro, Ivana, 2019, *The Intercultural City Step by Step: A Practical Guide for Applying the Urban Model of Intercultural Inclusion*, Council of Europe.
- Darian-Smith, Kate & Paula Hamilton, “Remembering Migration,” in Kate Darian-Smith & Paula Hamilton, eds., *Remembering Migration: Oral Histories and Heritage in Australia*, pp. 1-14, Cham, Switzerland: Palgrave Macmillan.
- Freund, Alexander, 2015, “Under Storytelling’s Spell? Oral History in a Neoliberal Age,” *The Oral History Review* 42(1): 96-132.
- Halbwachs, Maurice, 1992, *On Collective Memor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Isin, Engin F., 2002, “City, Democracy and Citizenship: Historical Images, Contemporary Practices,” in Engin F. Isin & Bryan S. Turner, eds., *Handbook of Citizenship Studies*, pp. 305-316, London: SAGE Publications.
- Opp, James & John C. Walsh, 2010, *Placing Memory and Remebering Place in Canada*, Vancouver: UBC Press.
- Park, Christian J., 2020, “Conceptualizing Hanminjok-Damunhwa Through Cultural Meanings of the Oral Life Histories of Ethnic Korean Return Migrants,” *OMNES: 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10(2): 73-101.
- Passerini, Luisa, 1979, “Work Ideology and Consensus under Italian Fascism,” *History Workshop* 8: 82-108.
- Portelli, Alessandro, 2009(1979), “What Makes Oral History Different?” in L. Del Giudice ed., *Oral History, Oral Culture, and Italian Americans*, pp. 21-31,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Ricoeur, Paul, 2004, *Memory, History, Forgetting*,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ossi, Aldo, 1984, *The Architecture of the City*, Cambridge: The MIT Press.
- Saitta, Dean, 2020, *Intercultural Urbanism: City Planning from the Ancient World to the Modern Day*, London: Zed Books.

- Selvi Ünlü, Tülin, 2019, "Urban Memory and Planning: Investigating the Use of Oral History," *European Planning Studies* 27(4): 802-817.
- Tabeau, Mark, 2013, "Listening to the City: Oral History and Place in the Digital Era," *Oral History Review* 40(1): 25-35.
- Thomson, Alistair, 2007, "Four Paradigm Transformations in Oral History," *The Oral History Review* 34(1): 49-70.
- Veldpaus, Loes, Ana R Pereira Roders & Bernard J.F. Colenbrander, 2013, "Urban Heritage: Putting the Past into the Future," *The Historic Environment: Policy & Practice* 4(1): 3-18.
- Wenger, Etienne, 1998, *Communities of Practice: Learning, Meaning, and Ident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ood, Phil, ed., 2009, *Intercultural Cities: Towards a Model for Intercultural Integration*, Council of Europe.

〈자료〉

- 김대영, 2020, "안산시, 전국 최초 외국인 주민 재난지원금 지원," 『일간경기』 5월 8일. <https://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4246>
- 김정옥, 2023, "특집 사할린동포의 꿈을 찾아서 ... '이산가족' 안산 고향마을 편," 『경기남부뉴스』 5월 29일. <https://gyeongginambu.com/article-ok20230528-1/>
- 안산시청, 2023, "2023년 12월 안산시 외국인주민 등록 현황," 안산시청 홈페이지, https://www.ansan.go.kr/stat/common/bbs/selectPageListBbs.do?bbs_code=B0685
- Chung, Christine, 2020, "NYC Cultural Institutions Preserve Pandemic Memories in Real Time," *The City* 5월 6일. <https://www.thecity.nyc/2020/05/06/nyc-cultural-institutions-preserve-pandemic-memories-in-real-time/>
- INCITE, n.d., "The NYC COVID-19 Oral History, Narrative, and Memory Project," *Columbia Center for Oral History Research*. <https://incite.columbia.edu/covid19-oral-history-project>

Abstract

Oral History and Urban Heritage of Migrants

PARK Christian Joon

(Hanyang University ERICA)

In this paper, I explore my research journey towards selecting oral history and the urban heritage of migrants as a research focus, utilizing the framework of an “assemblage of research methods.” Drawing from anthropology, the concept of assemblage allows for the examination of the multifaceted and interconnected phenomena associated with globalization, highlighting the dynamic interplay of cultural elements such as customs, ideas, and materials within society. Emphasizing the fluid and spontaneous nature of cultural constructions, this approach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a flexible and self-reflective research methodology that transcends disciplinary boundaries. In this paper, I will discuss the collaborative oral life history research that brings together public history, oral history, and migration studies, Intercultural Cities Program and urban citizenship as alternatives to the nation-state centeredness, critical heritage studies, and urban heritage, and the Ansan Gohyangmaeul as a proof of concept of urban heritage of migrants through oral history. The last part of the discussion will focus on publicly memorializing diverse memories and experiences from below and intercultural placeness.

Key words : Public historical turn, Oral history, Memory boom, Critical heritage studies, Intercultural cities, Ansan Gohyangmaeul, Urban heritage of migrants